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은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 꾸러기학교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가 지난 5일(목)-6일(금)에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 멧쟁이학교 학년별 여행이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진행됩니다.
- 멧쟁이학교 4학년이 13일(토)에 해외문화체험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 기독교대안학교연맹 교장단 연수회가 12일(금)-13일(토) 순천 더힘스쿨에서 모입니다.
- 연령별사랑방 전체교사모임이 14일(일) 오후 1시 30분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이현준 청년(늘푸른 사랑방)이 8일(월) 군 입대합니다.
- 회복 중에 있는 정영옥(새싹 사랑방) 집사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진웅용 · 우창숙 집사 가정 (감사)
윤영민 · 한현정 선생 가정 (감사)
화퇴 목사 · 추칭샤 사모 가정 (결혼기념)

강단을 꽃으로 : 김성흠 청년(생일감사) / 윤혜교 집사(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23 호

2026년 6월 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편향된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무언가가 중요한 내기가 걸린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불확실했고, 조금씩 상대방이 유리해지기 시작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승리가 간절한 나머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게임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설교도 열심히 듣고, 예배 때 탄 짓도 안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물론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속으로만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패배라는 글자가 눈 앞에 다가오자 조급함은 절정에 달했고, 이윽고 마지막 역전의 기회 앞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판을 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거예요.' 그 직후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졌습니다. 속이 있는대로 상했던 저는 하나님과 결별하기를 남몰래 선언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좀 더 불성실해지고, 설교시간에 친구랑 탄 짓을 하거나 낙서를 했지요. 다행이도 그런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이렇게 살 순 없겠다고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치기가 느껴지셨나요? 이런 일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사건이 최초였을 뿐, 이후에도 수많은 미성숙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당시에 갖고 있던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필요가 생기면 찾아가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대변해줄 말씀만 쭉쭉 골라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은 모른척했지요. 그야말로 정신승리와 자기합리화의 화신이었지요. 이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러한 편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저는 교사로서 청소년들 앞에 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들과 눈을 마주할 때마다 '올바른 방향'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은, 때론 내 판단을 '올바른 것'으로 포장하려는 욕망에 뒤덮이곤 합니다.

말씀을 읽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어른들 방모임의 초등 버전이지요.

어린이들은 때마다 꼭꼭 기도합니다. 매일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는 차 출발할 때, 매일 점심 식사 전에 함께 기도드려요. 멋쟁이와 꾸러기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나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 아프실 때에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어린이들 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학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지난해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에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기도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만나서 기도했는데, 올해에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현장 기도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5월 30일 기도회까지 포함해서 올해 이미 세 번의 현장 기도회 시간을 가졌고, 그때마다 사랑방공동체학교와 학생들 가정의 여러 기도제목들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 가득, 감동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 기독교교육의 주체로서 하나님나라 교육을 아름답게 가꿔가고 있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6월에 접어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나날입니다. 학생회에서는 종강발표회 주제를 정하고, 대본위원회가 꾸려져 열정적인 의논이 오갔습니다. 선거날인 수요일에는 학교에 머물면서 즐거운 한 때를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재밌는 레크레이션, 점심식사로 각자 준비해온 재료와 함께 바비큐를, 오후에는 더운 날씨를 싹 잊어버릴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목요일에는 학년별여행 준비와 함께 6학년이 6월 모의고사에 분투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다려왔던 학년별 여행을 떠납니다. 함께 깊이 결합되는 여행으로 준비한 만큼, 서로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으로 다녀오도록 기도해주세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미국에서 최기찬 선생님과 4학년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좋은 마무리를 하면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또한 함께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사랑방 정원 이야기

초여름의 푸르름이 가득한 6월 이에요.

화사했던 봄꽃이 지고 어린 새싹을 내밀었던 나무들은 어느새 잎이 무성하여져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교회 마당을 산책합니다. 꽃밭에 물도 주고 풀도 뽑아 줍니다.

28년 전 사랑방교회가 종로에서 자연예배 처소로 무림리에 이사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무림리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땅에 개망초(계란꽃)와 풀만 무성하였고 어린 느티나무가 땅의 경계선으로 빙~둘러 심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어린 나무가 지금은 아주 멋진 큰 나무가 되어 시원한 그늘 쉼터가 되었어요.

느티나무는 정자목으로 보통 시골마을 어귀에 심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나무로서 어쩌면 사랑방공동체와 잘 어울리는 나무라고 생각됩니다.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데크에 앉아 있으면 주님의 품안에 안긴 듯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연예배당 앞 꽃밭에는 으아리덩굴, 튤립, 마아가렛, 안젤로니아, 델피니움, 솔체, 수국....꽃들이 정답에 피어 있어요.

잘 다듬어진 잔디 십자가 동산을 지나 채소밭으로 가는 가운데길 아치에 장미 덩굴을 심었어요. 올해 처음 심었는데 여러 송이가 예쁘게 피었어요. 빨간 장미(레드벨렛)이에요. 몇 년 지나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미 아치 길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랑방 정원은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정원입니다.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풀 한포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계절과 시간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사랑방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나의 아주 작은 이야기도 아시는 하나님

열 살 여자아이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눈종이에 그리니 눈금에 맞춰 크기를 잘 조절할 수 있고 자세히 그릴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살고 싶은 집어요. 모눈종이 위에 빨간 벽돌 이층집을 지은 아이는 넓은 마당 가득 꽃을 심었고 나무 그늘 밑엔 예쁜 의자도 놓았습니다.

아이의 장미가 좋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지나가는 담장 높은 집엔 빨간 장미꽃이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내밀며 한가득 피어있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아찔한 장미꽃 냄새를 맡으며, '어른이 되면 저 예쁜 장미를 우리 집 마당에 심자' 하고 혼자만 아는 약속을 했습니다.

장미꽃 활짝 핀, 마당 넓은 집을 그릴 때마다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른이 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마음엔 기쁨이 차올랐지요. 그래서 매일 모눈종이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같은 집이었지만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마당이 조금 더 커지기도 했고 금붕어가 사는 연못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열 살 봄부터 겨울까지 아이는 지치지 않고 빨간 벽돌집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그 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십 년 전 열 살이었던 그 아이는 예수 살 여름날, 마당에 핀 장미꽃에 코를 갖다 대다가 문득 깨달습니다. 그 옛날 어린아이였을 때 그렸던 집이랑 똑같이 생긴 집을 짓고, 빨간 장미꽃을 보며 '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하며 웃고 있구나!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 꿈이 나도 모르는 새 이루어져 있다니!! 나도 잊고 있던 꿈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루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하. 그래서 나는 이 마당이 그렇게도 좋았던 거였어. 마당에서 호미 하나 들고도 마음 가득 행복이 차올라 활짝 웃는 할머니! 난 그런 유쾌한 할머니가 될 거야.' 오늘도 혼자만 아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 이 작은 이야기도 다 들으셨죠?

따뜻한사랑방 이재신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골로새서 1 : 16-20

68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공동기도)

마태복음 5 : 9

41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이사야서 2 : 4

442

설교자

새작사랑방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16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양기모 이승호 / 봉헌위원 : 하경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공동기도문>

공동기도문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흠족해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간 우리가 외면해 온 고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그간 우리가 잊어버린 생명의 신음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그간 우리가 침묵했던 정의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지는 생명들, 불타는 숲과 사라지는 종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웃 앞에서
 평화를 말하면서도 경쟁과 배재의 논리를 따랐고,
 생명을 말하면서도 편리와 효율을 앞세웠으며,
 정의를 말하면서도 부정의에 눈감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며,
 탐욕과 교만의 언어를 잠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서로에게 숨이 되어 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서로에게 돌봄이 되어 어느 존재도 소외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폭력을 멈추고 만물의 화해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김예지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6월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란 주제로 한 달을 생활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배우며 자연환경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노력합니다.

꾸러기들이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캠프가 찾아왔습니다. 진작부터 꾸러기들은 아빠와 함께 캠프 노래를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 노래도 연습하고, 텐트도 쳐보고, 아빠와 같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5시에 아빠들이 와서 텐트를 칩니다. 꾸러기들도 열심히 아빠를 도와 텐트를 칩니다. 모두 기대에 부풀어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를 합니다. 올해 아빠들은 작년에도 같이 했던 아빠들이라 일정을 수월하게 참여했습니다. 우선 저녁에 다 같이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숯을 피우고, 고기도 굽고, 소세지와 김치도 굽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한 상은 꾸러기들을 춤추게 하며 맛있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특별한 사진 찍기, 신문지 놀이, 장애물 놀이, 물총놀이 등 꾸러기와 아빠들이 힘을 합쳐 아주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는 시간에 꾸러기들은 피곤하지만 아빠와 함께 캠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꾸러기들과 아빠 모두가 많이 많이 사랑하고, 행복해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한 주의 첫 시간인 월요일 1교시는 어린이학교 예배 시간입니다. 정다운 전도사님께서 주로 설교를 도맡아 해주시는데, 멧쟁이학교의 전도사님들도 한 학기에 두어 번씩 특별히 어린이를 위해 오셔서 설교해주셔요. 지난 월요일에는 이어진 전도사님께서 '용서해주고 행복을 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주셨어요.

화, 수, 금요일 1교시는 성서일기 시간입니다. 각 반끼리 모여서 성서일기 쓰기를 배우고 나누는데요. 먼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배움과 가르침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50장, 200장

성 경 : 역대지상 13장 1-5절

말 씬 :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의 확대 방지를 위해>

3일 이란이 쿠웨이트공항을 공격하여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쟁들이 진행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의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속히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독교 환경운동>

*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교회가 창조환경을 잘 보존하는데 힘을 보태기를

* 신앙적 성찰과 행동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손길이 많아지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2) 귀국을 앞둔 최기찬 전도사님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3) 새롭게 뽑히는 리더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미뤄두었던 5월과 6월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지난 목요일에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교육관 증축 공간은 준공을 기다리고 있고, 원두막 제작은 마무리가 되어 쉽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무성해지는 잡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주변 정리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못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

<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9 19 / 312

기도 :

성경 : 역대상 15장

제목 :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1. 내용: 다윗이 다시 준비하여 언약궤를 모셔오다 (What)

<문단구분>

1~3절 다윗의 결심

4~10절 다윗이 불러 모은 레위 사람들

11~15절 언약궤를 옮길 레위 사람들

16~24절 찬양대와 문지기

25~29절 다윗 성으로 들어온 언약궤

2. 의미: 처음의 실패를 교훈삼아 잘 준비하였다. (Why)

1) 방법을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준비

2)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3) 사려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 준비

3. 적용: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How)

1) 서두르는 마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자.

2)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사려깊게 행동하자.

3)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성서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50장, 200장

성경 : 역대지상 13장 1-5절

말씀 :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의 확대 방지를 위해>

3일 이란이 쿠웨이트공항을 공격하여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쟁들이 진행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의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속히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독교 환경운동>

*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교회가 창조환경을 잘 보존하는데 힘을 보태기를

* 신앙적 성찰과 행동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손길이 많아지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2) 귀국을 앞둔 최기찬 전도사님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3) 새롭게 뽑히는 리더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미뤄두었던 5월과 6월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지난 목요일에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교육관 증축 공간은 준공을 기다리고 있고, 원두막 제작은 마무리가 되어 쉽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무성해지는 잡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주변 정리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